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32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17,35-43)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향,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23,35-43 그리스도왕 대축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지금도 명물 관광코스가 있다. 바로 '금문교' (Golden Gate Br.)라는 다리이다.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 이 다리를 세우는 공사를 할 때 인부들이 바다로 떨어져 죽는 일이 자주 생겼다고 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운 마음을 지닌 채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심과 회의는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고, 이것은 곧 좌절과 포기로 연결되었다.

공사를 주관하던 건설업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당시 10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공사장 아래에 그물을 쳤다. 그날부터는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든든하고 큰 그물 덕분에 바다에 '빠져 죽지 않으리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심과 회의가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 두려움이 좌절과 포기를 낳게 한 것이다. 반면 하나의 그물망은 믿음과 확신을 갖게 했고, 그 믿음은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그들의 목표를 거침없이 이행하도록 했던 것이다.

의심과 회의, 믿음과 확신이라는 두 범주를 만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복음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진정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를 의심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던 한 사람의 모습에서 보였던 의심과 회의, 두려움과 좌절은 구원의 포기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안전망'으로 고백한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예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을 고백한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회의와 의심의 마음을 품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선사받게 된다.

이 말씀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의와 의심을 품을 때도 있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내 생각과 삶이 성화됨을 체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매일 예수님을 만나면서, 매일 성호를 그으면서, 매일 십자가를 대하면서 '그분 때문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 안에서 그분이 참으로 내 '생명'의 안전망이요 내 '삶'의 안전망임을 확신하며 산다는 것 아닐까 싶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수원교구 11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HODIE MIHI CRAS TIBI)

산 이와 죽은 이들의 통교가 가능하다는 전통 교리를 굳게 믿고 연옥 영혼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 새 성전 이전 기념 축제가 있습니다. 축하 행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쁨을 같이 즐기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사무엘기 상권 8-15장

◆ 성서문제

1. 1사무 8,4-7을 읽고 다음의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2. 1사무 9-10장을 읽고 ‘사울’에 대한 서술 중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답을 고르시오. ()

- ① 사울은 벤야민 지파의 아들 중 하나였다.
- ② 사울은 잘 생겼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 ③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우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하고 말하였다.
- ④ 사울은 기브아 엘로힘의 성읍에서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하느님의 영이 아닌 예언자들의 영이 들이닥쳐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3. 1사무 12장 사무엘의 고별사를 읽고 다음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저질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 없이, () 주님을 섬기시오.
여러분에게 이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마시오.
그것들은 정녕 헛된 것들이요,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요,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소.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하기를 그치거나 하여 주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좋고 바른길을 가르쳐 주겠소.
여러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하고 ()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신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요."

5. 1사무 14,24-46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먹은 음식은 무엇인가?

- ① 죽 ② 버섯 ③ 꿀 ④ 염소

5. 1사무 15,10-31을 읽고 5.1-7,1을 읽고 다음 물음 중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을 고르시오. ()

- ① 사울은 아말렉족과 싸우고 나서 임금 아각을 산 채로 사로잡았다.
- ② 사울은 아말렉 족의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과 새끼 양들을 제물로 아껴두었다.
- ③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 ④ 하느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없었지만 하느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으로 첫 임금이 됩니다.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 하느님의 전쟁 계율'을 어기면서 버림받게 됩니다. (1사무 15장)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는 요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업적을 이루어내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신 하느님께 '순명'으로 얼마나 '충실' 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지도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려 하는 자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순명하며 주님의 뜻을 읽으려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앵미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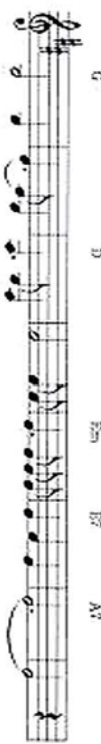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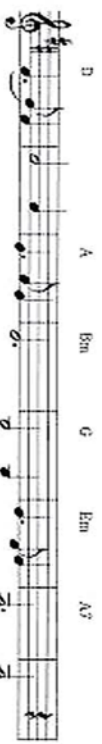
작사 원정수
작곡 현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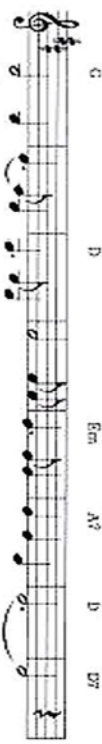
하느님 백성 자녀들이! 모두 모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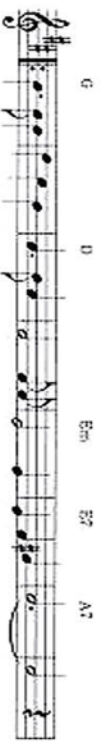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앞길 무아



중-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